

<동정자료>

박선호 차관, “이라크 재건사업에 적극 협력” 의지 밝혀 이라크 건설주택부 차관 면담…재건사업 등 인프라 협력 논의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1일(목)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스타브라크 알슈크 (Istabraq Ibaraheem Al-shouk) 이라크 건설 주택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.
 - 양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강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.
- 박선호 차관은 “이라크는 비스마야 신도시,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온 중동지역의 중점 인프라 협력 국가” 라고 강조하며,
 - “앞으로도 이라크 재건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프라 분야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이에 알-슈크 주택건설부 차관은 “양 정부간 우호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계속하여 확대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으며,
 - 이어 “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협력의지에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”는 뜻을 전했다.
- 이번 고위급 면담은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, 올해 양국이 제9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·기술 교류방안을 논의하고, 신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.

2019. 4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